방방곡곡 시민과 함께 화합 · 자비나눔 넘실

부산 · 대구 · 김천 · 대전 · 군산 · 청주 · 청원 등 부처님오신날 기리는 행사 '다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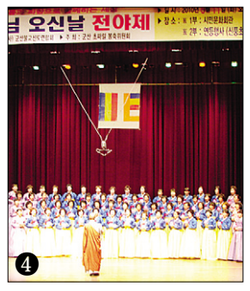
부산, 대구, 김천, 대전, 군산 등 전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로 열기가 뜨겁다. 천안함 사고, 구제역 파동, 지역 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전국 사암연합회는 화려한 행사보다는 지역민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데 힘썼다. 특히 대부분의 봉축행사에서 천도재를 함께 봉행해 천안함 희생자 및 유족을 위로했다.

화려한 행사보다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경로잔치, 지역시민과 함께하는 시민문화축제, 종단과 종교 간의 화합으로 부처님오신날의 참의미를 일깨우는 자리가 됐다.













❶ 부산 불자들의 소망이 담긴 풍등이 장관을 연출했다.
❷❸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주최한 연등축제가 5월 9일 봉행됐다. 청주 무심천변에서 열린 연등축제에는 지역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 봉축 열기를 더했다.
❹ 5월 11일 군산 시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연등축제 전야제 1부 행사에서 군산시연합합창단이 찬불가 공연을 하고 있다.
❺ 왼쪽부터 삼광사 주지 화산 스님, 범어사 주지 정여 스님, 미륭사 회주 정각 스님(오른쪽) 등이 풍등을 날리고 있다.
❻ 김천 직지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 어르신을 초청해 만발공양 경로잔치를 열었다.

#부산 봉축 열기 후끈~

200만 불자를 자랑하는 불심(佛心)도시 부산에서는 봉축상징물 점등식을 시작으로 봉축 열기가 고조됐다.

부산연등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인 봉축상징물 점등식이 5월 7일 부산역 광장 일대에서 열렸다. 이날 밝힌 연등은 21일까지 광장을 환하게 밝힌다.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회장 정여)가 주관하는 점등식에는 천태종 삼광사를 비롯해 부산지역 각 사찰에서 출품한 장엄물이 한자리에 모였다.

2000여 사부대중은 이날 손수 소원을 풍등에 적어 하늘로 날려 보내기도 했다. 소망성취를 기원하는 풍등은 올해 처음 선보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12일에는 부산연등축제와 부처님오신날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대형 장엄등 카퍼레이드'가 부산시 주요 도로에서 펼쳐졌다. 카퍼레이드는 사직종합운동장에서 출발해 구덕운동장을 경유, 해운대 벡스코까지 이어졌다. 선도를 맡은 부산개인택시불자연합회 법륜회에 이어 대형 장엄등 10여 점과 축제 홍보영상 방송차량 등이 카퍼레이드에 참여해 부산 시민의 발길을 붙잡았다.

한편, 부산 기장군불교사암연합회(회장 혜성, 혜광사 주지)는 군내에서 독자적으로 '기장군민 연등축제'를 봉행했다. 5월 9일 봉행된 축제는 불교문화체험, 제등행진, 봉축법요식 등으로 구성돼 여법하게 진행됐다.

기장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염주와 컵등 만들기, 전통차 및 탁본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불교문화 부스가 마련됐다. 봉축법요식에는 기장군 내 30여 사암 주지스님 및 최현돌 기장군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직지사 · 원만사 자비나눔

김천 직지사와 대구 원만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원만사(주지 법홍)는 5월 10일 원만사 경내에서 나눔봉사회 주축으로 경로 위안잔치를 열어 어르신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했다.

11일 김천 직지사(주지 성웅)는 경내 만덕전에서 만발공양 경로잔치를 열었다. 경로잔치는 관내 어르신을 모시고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정성스런 음식과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군산 연등축제 봉행

군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5월 11일 연등축제를 군산시민회관과 나운동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사암 스님과 기관장 등 5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법요식에서 성우 스님(금산사 부주지)은 법어를 통해 "부처님오신날의 참뜻을 알고 마음공부를 게을리 하지 말자"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며 이웃과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등축제는 군산시 연합합창단의 찬불가 합창, 흥천사 유치원 어린이들의 율동으로 시작돼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또한 화려한 장엄등이 군산 거리에 빛을 발해 아름다움을 더했다.

#대전사암련 시민문화 연등축제

대전불교사암연합회는 시민과 화합, 종단간의 소통으로 부처님오신날을 반겼다.

제2회 대전 시민문화 연등축제는 5월 15일 대전시청 남문광장 건너편 보라매공원에서 진행됐다.

연등축제는 종교행사를 넘어 시민이 함께하는 전통 문화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많은 종단과 단체가 참여해 종단간의 화합의 장을 펼쳤다.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지역의 각 종단과 연합신도회, 여성불자회, 거사림연합회, 연합합창단, 종립학교인 보문고등학교 관련 신행단체들이 한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대전불교사암연합회 총무부장 법륜 스님은 "한국 불교가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불자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로 만들었다"며 "신도간의 교류와 결집을 위해 불교연합합창제를 열고 시내 곳곳에 연등과 장엄물을 설치해 봉축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등행렬 구간에서 천태종과 진각종에서는 장엄물을, 태고종에서는 영산재 시연 차량을 특별 제작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

충북도민과 함께하는 연등축제와 부처님오신날 연합봉축법회가 5월 9일 청주 무심천변에서 열렸다.

청주청원불교연합회가 주최하고 충북불교총연합회가 후원하는 이날 축제에는 원봉 스님(보현사 주지), 노현 스님(법주사 주지), 정우택 도지사 예비후보, 청주신행단체협의회 이상칠 회장, 불교단체장들과 회원들, 도내 불자들 1만 여 명이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했다.

노현 스님은 법문에서 "인생에는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우리들은 하루에도 수천수만 번의 생과 사의 윤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며 "실속 없는 지혜로는 생사초탈 못하나니, 무상한 도리를 알라"고 설했다.

이어 기관장 및 원로 스님들의 점등식, 불꽃놀이가 펼쳐졌다. 제등행렬은 무심천을 출발해 청주대교, 성안길, 도청 서문, 상당공원까지 이어져 시민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

박지원 기자 · 혜철 충청지사장
손법천 대구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팔공산 제2석굴암 대구역 봉축 점등식



팔공산 제2석굴암(주지 법등)은 5월 13일 대구역 3층 콘코스에서 부처님오신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주제로 봉축점등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한국철도공사 대구본부 이채권 본부장, 대구역장 박희범과 불자역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법등 스님은 법어에서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두루 비추어 어두운 무명업장 맑게 가시고 삼계의 고뇌를 모두 벗어나서 일체중생이 성불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반야심경 사경 목사님 이웃종교와 합동법회



이근태 목사가 사경을 하는 모습.

부처님오신날인 21일 충북 옥천 대성사(혜철)에서는 불자들뿐 아니라 개신교 · 천주교의 성직자와 신도들이 함께 봉축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는 옥천성당 신순근 주임신부, 보은 학림교회 이근태 목사와 이웃종교 신도들이 동참해 부처님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비교하는 자리도 마련한다. 특히 이근태 목사는 직접 사경한 반야심경을 대성사에 선물하며 종교 화합을 발원할 예정이다.

혜철 스님과 옥천성당 신 주임신부는 5년 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때 신도회 회장단과 함께 상호 방문해 법회와 미사를 합동으로 봉행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불기 2554년(2010) 경인년 부처님 오신날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중앙율원장 : 성민
역 경 원 장 : 혜산법종
방 장 : 혜일, 대련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법종, 성민, 혜일, 혜정, 백공,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종 회 의 장 : 백공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총무부장: 성산
재무부장: 도불
교무부장: 정덕
사회부장: 원광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묘현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천
문화국장: 혜일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총무과장: 법산
총 무: 조덕연

교육원장: 혜만
교육부원장: 청호
교육부장: 덕산
교육국장: 지원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보운
포교국장: 법진
국제포교국장: 청목

기획원장: 진성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정호
호계부장: 지오
규정부장: 월성
규정1국장: 영암
규정2국장: 영산
호법부장: 태산
호법국장: 서산

감찰원장: 상산
감찰부장: 도명
감찰1국장: 인산
감찰2국장: 운산

비구니부장: 지성
총무: 묘현
부회장: 해월
재무: 도은
교무: 현타
교육: 수정, 성담
문화: 원산, 관불
포교: 석경, 보명, 련성
강원: 덕산, 지해
복지: 정해, 보현
감찰: 수산, 본각
불화: 혜담, 인산
의식: 영산, 수옥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교구종무원장: 상산
경기교구종무원장: 도불
인천교구종무원장: 혜원
강원교구종무원장: 광덕
충남교구종무원장: 무광
충북교구종무원장: 백공
대구교구종무원장: 원명
경북교구종무원장: 원광
경남교구종무원장: 도흥

경남서부종무원장: 지원
부산중부교구종무원장: 정오
전북교구종무원장: 정산
광주전남교구종무원장: 지각
제주교구종무원장: 덕산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청목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법인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본국검도협회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조계종 삼화불교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조덕연
논설위원: 이기형
사회부기자: 이근진
이사 : 혜원, 정산, 보운, 각원, 덕산, 관불, 해인, 중비, 묘현, 지성 보현, 수옥, 서호, 성화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사업부: 김희곤
삼화불교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인권식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서무차장: 조덕연
기획실장: 조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삼화불교대학림
학 장 : 법종 부학장 : 혜원
교 수 : 법종, 백공,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원광, 묘현, 지성

▣삼화불교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법종,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도홍,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청산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황봉, 가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정 노사나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혜담, 보현, 본각, 수옥, 관불, 향인, 수정, 현조, 보경, 지해, 지홍, 원산, 해월, 성담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조계종삼화불교신문 (02)3445-7375~6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조계종삼화불교.kr (www.shbuddhism.or.kr)
삼화불교신문: www.jogaejong.or.kr
삼화불교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